

고대 유라시아의 馬文化 — 몽골·중국·한국을 중심으로 —

張 允禎

I. 머리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무덤은 물론이고 출토 유물의 형식적 변천과 지역적 특색 등 접근방식과 분야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말문화, 특히 기마문화에 대한 계통과 교류 등의 연구는 주로 중국 동북지방을 대상으로 하며 선비계, 부여계 등으로 표현되고 시기적으로는 4세기대 자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동북지방의 實物馬具가 알려진 1970년대부터 그 이후 급증한 발굴조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국한된 환경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공간적으로는 몽골 지역, 시기적으로 4세기 이전단계인 匈奴로 시야를 넓혀 우리나라와 중국, 몽골의 馬文化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각 지역에 있어서 동물의 부장

몽골에서 활약한 흉노와 우리나라, 이들 두 馬文化 사이의 시공적인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서 대상으로 하는 흉노는 시기적으로 기원전 3세기~서기 2세기이며 (에렉젠 2009), 우리나라는 대체로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서기 4세기~6세기에 집중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도 흉노는 남쪽으로 만리장성, 북쪽으로 바이칼 호, 동쪽으로 한반도 북부, 서쪽으로는 서역지역에까지 광범위하다. 고고학적으로는 몽골지역에 분포하는 무덤양식에 주목하여 흉노의 활동영역을 규정되고 있다 (강인욱 2010). 우리나라는 현단계에서 한반도 남부지방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알려진 흉노와 선비로 추정되는 유목민의 유적에서 공통된 요소 중 하나가 동물 부장이다. 이것과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무덤에 부장된 동물 그 자체만으로 그것을 해석할 때 북방문화, 혹은 유목문화의 영향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와 북방문화의 관련성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북흉노가 활동했던 몽골 지역의 동물부장을 파악할 때 (張允禎 2012a, 2012b)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같은 족속인 남흉노가 활약했던 중국 내 몽고지역의 흉노와 함께 선비유적도 눈을 돌려 우리나라와의 시공적인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

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부장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북방문화 속의 매장습속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무덤에서 확인되는 동물 부장양상과 비교, 검토하여 각 지역의 특색과 그 사회적 의미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1. 몽골지역

몽골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흉노무덤은 70 여 개이고 약 4000 기의 무덤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대략 400 여기에 이른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몽골지역 흉노무덤에서의 동물 부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물의 종류

[표 1] 몽골 내 각 지역별 출토 동물의 종류

아이막지역	양	염소	말	소	토끼	새	개	낙타	곰	미확인
오브스	●	●	●							
홉드	●		●	●				●		
고비알타이	●	●		●						
홉스골	●	●								
아르항가이	●		●	●	●					●
볼간	●	●	●	●			●			●
움르항가이	●	●	●	●		●	●			●
다르한울		●	●	●						●
투브	●	●	●	●		●	●	●		●
돈드고비	●		●							
헨티	●	●	●	●					●	●
수흐바타르	●		●							

표 1을 참고하면, 몽골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羊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서 출토되고 있는 羊의 뼈는 머리뼈, 목뼈, 다리뼈, 갈비뼈, 엉덩이뼈, 복숭아뼈 등 매우 다양하다. 양과 염소, 말, 소 등에서 2종류 혹은 3종류의 조합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그 가운데 양, 염소, 말, 소 등 4종류 전부가 확인되는 지역은 볼간 아이막지역, 움르항가이 아이막지역, 투브 아이막지역, 헨티 아이막지역 등 4 곳이다. 그리고 개 뼈는 투브 아이막지역의 바룬 하이라한 90-6 호, 볼간 아이막지역의 보르한 톨고이 제 46 호, 제 50 호, 제 60 호, 제 69 호, 부리야트 일밍암 제 58 호, 테르스트 제 36 호 등이 알려져 있다 (윤형원 2003).

몽골지역의 동물 뼈 출토상태를 근거하면 (1) 염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르항가이 아이막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서쪽은 羊이 중심을 이루며 소 (牛)나 말 (馬) 중 하나를 조합하고 있는데 몽골지역 전체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동쪽 역시 羊이 중

심을 이루고 있으나 소 (牛) 와 말 (馬) 이 조합되는 경우가 많다. (2) 개 뼈의 존재유무로 보면 서쪽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동쪽은 개 한 마리가 부장되고 있다. (3) 음식물 적 성격이 강한 容器 안에서 출토된 동물의 종류를 보면 서쪽은 羊을 매납하고 동쪽은 羊을 포함한 말 (馬), 소 (牛) 가 확인되고 있다.

2) 부장위치

몽골지역 흉노무덤에는 분구가 존재하지 않고 지표면에 적석으로 영역이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물의 부장은 (1) 지표면의 적석 혹은 표토, (2) 묘광내부, (3) 피장자를 중심으로 한 매장주체부, (4) 부장공간, 주로 피장자의 머리 위에 위치하며 목관 밖, 목관과 목곽사이, 혹은 묘광 내에서 피장자의 주변이 아닌 토기와 동물을 일괄적으로 부장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5) 豎穴에 가깝게 굴착된 묘광 벽 일부를 橫으로 파서 공간을 만들어 사용한 것, (6) 토기나 동복 등 容器에 넣어진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장된 동물은 묘광 내부→매장주체부, 부장공간→容器 안→묘광 벽 안, 지표면 적석 혹은 표토 順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몽골 내 각 지역별 동물 부장양상

아이막지역	부장위치					
	지표면	묘광내부	매장주체부	부장공간	묘광 벽 안	容器 안
오브스		●	●			
홉드			●	●	●	
고비알타이		●	●		●	●
홉스골		●	●			●
아르항가이	●	●	●	●		●
불간	●	●	●	●	●	
읍르항가이		●	●	●		
다르한울		●		●		
투브	●	●	●	●	●	●
돈드고비		●				
헨티	●	●	●	●		●
수호바타르				●		

2. 중국 내몽고지역

중국 내몽고지역의 흉노와 선비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용민 1999). 주요 대상유적은 다음과 같다. 准格尔旗의 북부 황하 남쪽에 위치하는 西溝畔 흉노묘, 伊克昭盟의 東勝縣에서 서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입지하는 補洞溝 흉노유적, 寧夏回族자치구 同心縣 倒墩子村에서 확인된 倒墩子 흉노유적, 青海省 西寧市에서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大通縣 大通河 주변에 대규모로 조성된 上孫家寨 흉노유적, 呼倫貝爾盟 扎賚諾爾에 위치하는 扎賚諾爾古墓群, 呼

倫貝爾盟 扎賚諾爾로부터 서쪽으로 40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입지하는 陳巴爾虎旗完工古墓, 呼倫貝爾盟지구 伊敏河 좌우에 조성된 무덤군인 伊敏河유적, 昭吳達盟 巴林左旗의 林東鎮에서 북쪽으로 약 35km 떨어진 烏爾古木倫河 동쪽에 위치하는 南楊家營子유적, 烏蘭察布盟 察右后旗 紅格爾圖鄉 光明행정촌 동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三道灣유적, 滿州里市에 위치하는 扎賚諾爾圈河古墓, 呼盟文物站이 있는 新巴爾虎左旗伊和烏拉鮮卑墓, 科右中旗 北瑪尼吐村에서 서북쪽으로 300m 떨어진 北瑪尼吐鮮卑墓群 등이다.

1) 동물의 종류

흉노와 선비무덤은 각 유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여기에서도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표 2 를 참고하면 흉노 무덤으로 추정되는 西溝畔 흉노묘, 補洞溝 흉노유적, 倒墩子 흉노유적, 上孫家寨 흉노유적 등 4 개의 유적에서 羊은 1 개체분, 또는 부분적으로 머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소 (牛) 와 말 (馬) 은 머리만 부장하고 있다. 한편, 선비유적으로 알려진 자료 중 출토율이 가장 높은 동물은 소(牛)이고, 그 다음은 羊과 말(馬), 개, 돼지, 닭 등의 順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토상태에 근거하면 소 (牛), 말 (馬), 羊의 경우, 한 마리 전체를 활용한 유례는 드물고 머리, 다리 등 부분적인 부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개 (犬) 의 경우, 머리 등 부분적인 부위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 개체 전체를 부장하는 유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흉노와 선비무덤 출토 동물의 종류

유적	동물의 종류					
	양	말	소	개	닭	돼지
西溝畔 흉노묘	●	●		●		
補洞溝유적	●	●	●			
倒墩子유적	●		●			
上孫家寨유적	●	●	●	●	●	●
扎賚諾爾古墓群(鮮卑)	●	●	●			
陳巴爾虎旗完工古墓		●	●	●		
伊敏河유적		●	●			
南楊家營子유적	●	●	●	●		
三道灣유적	●					
額爾古納右旗拉布達林鮮卑墓群	●	●	●			●(야생)
扎賚諾爾圈河古墓			●			
新巴爾虎左旗伊和烏拉鮮卑墓		●	●			
北瑪尼吐鮮卑墓群	●			●		

2) 부장위치

앞에서 소개한 4 개의 흉노유적과 9 개의 선비유적 내의 동물 부장위치는 거의 대부분이 묘광 내부에 해당된다. 제한된 자료이지만 ‘묘광 내부’ 라는 요소를 구체화하면 가장 많은 유형은 피장자 주변에 동물을 부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木蓋 상부로 木棺이나 木槨의 뚜껑, 橫木 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4] 흉노와 선비무덤의 동물 부장위치

유적	묘광내부					
	피장자주변	묘도	관외부	木蓋상부	충진토	비고
西溝畔 흉노묘	●					
補洞溝유적	●					
倒墩子유적		●				
上孫家寨유적			●	●		
扎賚諾爾古墓群	●			●	●	
陳巴爾虎旗完工古墓	●			●		
伊敏河유적					●(토대)	
三道灣유적	●					
額爾古納右旗拉布達林鮮卑墓群	●			●		
扎賚諾爾圈河古墓	●		●			
新巴爾虎左旗伊和烏拉鮮卑墓	●					●
北瑪尼吐鮮卑墓群	●					

3. 우리나라

1) 동물의 종류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질제의 잔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출토된 동물 뼈가 부장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유적에서 검출된 동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동물은 말(馬)이며 그 다음으로 소(牛) → 닭 → 개·오리 등의 순으로 출토빈도가 높다. 또한 말(馬) + 소(牛)의 조합은 김해, 경주, 나주 등의 지역에서 보이며 출토 동물의 종류가 다양한 지역은 경주이다.

가장 많은 개체가 검출된 말뼈의 경우, 출토상황에 근거하여 사용된 신체부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1 개체분의 부장과 부위별 부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前者의 사례는 김해, 경주, 나주 등의 지역에서, 後者は 동물이 부장된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출토된 부위는 머리뼈가 주류를 이루고 그 외 등뼈, 다리뼈, 꼬리뼈 등이 있다.

[표 5] 우리나라 출토 동물의 종류

지역	유적	동물의 종류									
		말	소	닭	개	오리	꿩	바다사자	거북이	사슴	미확인
부산	북천동	●									
김해	대성동	●	●								
	예안리	●									
울산	중산리	●									
경주	황남대총 (남분)	●	●	●		●	●	●	●		
	미추왕릉 C 지구	●									
	미추왕릉 D 지구	●									
	황남동 106-3 번지	●									
함안	도항리	●									
함천	반계제	●									
	M 3 호분									●	●
고령	지산동	●		●							
상주	신흥리	●									
나주	복암리	●	●		●						
군산	산월리	●									

2) 부장위치

동물의 부장위치는 크게 6 개소로 나눌 수 있다. (1) 매장주체부를 포함한 묘광 내부, (2) 무덤과 무덤 사이 혹은 주변, (3) 하나의 묘광 이외에 새로운 유구를 조성한 것 - 부속시설, (4) 분구, (5) 호석, (6) 주구 등이다. 이 가운데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묘광 내부에 해당되며 그 다음으로 부속시설 (7 예) → 주구 (5 예) → 유구주변, 분구와 호석 등의 순서이다. 묘광 내부는 피장자를 위한 공간으로 거기에서 행해진 동물부장 역시 피장자에 대한 제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지역만 아니고 우리나라 全域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피장자와 구별되는 다른 공간의 새로운 유구, 즉 부속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동물부장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례가 많이 알려진 지역은 경주이다. 경주 주변의 울산이나 임당 등의 지역에서는 주구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토기 등 容器 안에서 동물 뼈가 검출된 것은 음식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례는 고령을 비롯하여 경주, 울산, 함안, 창녕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표 6] 우리나라 유적별 동물 부장위치

지역	유적	부장위치						
		묘광내부	유구주변	부속시설	분구	호석	주구	容器 안
부산	복천동			●				
김해	대성동	●		●				
	예안리	●	●					
울산	중산리					●	●	
경주	황남대총 (남분)				●			●
	미추왕릉 C 지구			●				
	미추왕릉 D 지구			●				
	황남동 106-3 번지	●						
함안	도항리	●						
합천	반계제		●					
고령	지산동	●	●					●
상주	신흥리	●						
나주	복암리						●	
군산	산월리	●						

4. 소결

이제까지 몽골지역, 중국 내몽고지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물의 부장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몽골지역에서는 羊, 염소, 소 (牛), 말 (馬) 등이 2 가지에서 4 가지로 조합된 현상이 보였고 중국 내몽고지역에서는 羊, 소 (牛), 말 (馬) 의 출토 비율이 대부분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말 (馬)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동물의 종류에 대해 유목경제가 중심인 사회에서 羊, 소 (牛), 말 (馬) 등의 부장비율은 당시 살아생전에 피장자가 보유 (사육) 하고 있던 가축의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축의 종류는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각 동물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曹建恩 2012). 몽골지역에서는 묘제 형식에 따른 동물 부장량에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하여 재산, 사회적 지위와 결부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에렉젠 2009). 이 경우 동물 부장에 활용된 동물의 종류와 그량은 무덤 조성과정에서 동원된 인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목사회의 이러한 현상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장된 동물은 말 (馬) 이 단연 압도적이고 그 다음으로 소→ 닭→ 개·오리 등의 순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하여 소 (牛) 혹은 닭보다 말의 사육양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 부장에 활용된 동물의 종류만으로 당시의 생업경제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문헌에 기록된 말은 전쟁에서의 기병이나 전쟁의 승패에 따른 조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육양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동물 副葬량과 피장자의 재산 혹은 사회적 지위와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삼국시대 무덤 출토 馬具에 주목하고 싶다. 예를 들면 경주지역 적석목곽분에서는 다양한 재질의 마구가

多量으로 확인되고 있어 마구의 재질과 부장양으로 당시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가 최고지배자임을 증명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덤 분구 내에서 마구가 확인되고 있어 의례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개(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오환 사람들은 개가 피장자를 하늘세계로 인도한다고 믿고 개를 붉은색 끈으로 매어 데려와 피장자와 함께 매장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에렉젠 2009). 이러한 개의 역할은 우리나라에서는 말(馬)과 겹치고 있다. 극히 제한된 자료이지만 우리나라 원삼국시대 무덤에서 확인되는 마형대구, 거마구를 비롯한 馬具 등은 당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에서 말에 대한 의식적 변화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이것은 삼국의 건국신화에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도 결부시킬 수도 있다.

다음은 동물 부장위치이다. 몽골지역과 중국 내몽고지역에서는 묘광 내부가 가장 많고 특히 피장자 주변의 출토 빈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역시 묘광 내부가 주류를 이루지만 그 외에 피장자와는 다른 공간, 즉 새로운 유구를 조성하는 부속시설이나 주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동물 부장이 피장자와 같은 공간인 하나의 묘광에서 이루어지는 몽골지역과 중국 내몽고지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피장자의 공간과 다른 별도의 새로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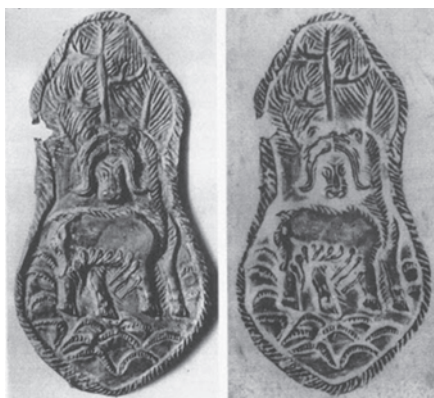
부장위치에 대한 또 하나는 동물을 음식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容器에서 출토된 동물에 한정하여 음식물로 간주한다면, 중국 내몽고지역의 남흉노, 일부 선비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북흉노가 활약했던 몽골지역에서는 容器 안에서 동물 뼈가 확인되고 있어 그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III. 말의 도구 —마구—

다음은 흉노 무덤 출토 유물 중 말띠드리개로 알려진 은제장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몽골지역뿐만 아니라 부리아트 공화국을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방, 우리나라 북부지역 등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포권을 가지고 있다. 은제장식 말띠드리개는 기존에 이 유물에 대해서는 은제장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銀製뿐만 아니라 금동제, 청동제 등의 재질도 확인되고 있다. 선험들의 표현을 참고하면(Ch. 유룰 에르테네 2008), 원형과 편타원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 전자는 말 가슴걸이장식, 후자는 말 후걸이장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양은 주로 동물과 구름, 나무 등이 입체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머리는 말과 유사한 것도 있으나 동물 이마에는 뿔이 한 개 혹은 두 개가 달려 있고 갈라진 발톱과 몸통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는 은제장식 말띠드리개 가운데 형태적으로는 편타원형이고 기능적으로 말 후걸이장식으로 추정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馬裝 중 말 후걸이장식에는 행엽과 운주가 있는데 편타원형의 은제장식 말띠드리개는 행엽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알려진 말띠드리개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착안하여 흉노 무덤 출토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와 동아시아 출토 행엽의 형태적 차이가 지역적 요소, 혹은 시기적인 흐름에 따른 변화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은제

장식 말띠드리개의 형태적 분석을 통하여 마구로서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도 1.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의 유례 (몽골지역 노용 올 6 호묘 출토품)

1. 형태

우리나라에서 행엽으로 인식되는 유물은 삼국시대부터 확인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행엽은 본체에 해당하는 身部와 그 위에 가슴걸이나 후걸이에 매달기 위한 가죽끈이 연결되는 구멍이 있는 立開으로 나누어진다. 이 때 입문을 통해 가죽끈을 직접 못으로 고정하기 위한 鉤金具를 갖는 예도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 주로 출토되는 행엽은 형태에 따라 하트모양의 心葉形행엽, 심엽형행엽 아래 부분의 돌출된 刺가 없어진 타원형행엽, 윗부분은 타원형이고 아랫부분은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생긴 것이 결합된 扁圓魚尾形행엽, 타원형과 칼끝처럼 생긴 것을 결합한 劍菱形행엽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異形행엽이 있고 각 형식의 행엽들은 그 출현 시기나 출토지역에서 차이가 있는 등 다양한 변화상을 보여준다 (이난영·김두철 1999).

2. 착장방법

형태상으로는 중국 동북지방 출토 행엽과 우리나라 삼국시대 출토 행엽의 공통점은 상단부에 장방형 立開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장윤정 2014). 행엽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장방형 입문을 통해 가죽 등의 유기질제 면계와 직접적으로 혹은 구금구로 연결된다.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의 현재 잔존상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면계에 착장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의 문양이 없는 안쪽 (뒷면)에 고리가 부착된 유형의 경우, 고리에 면계를 통과시켜 고리에 면계를 걸치는 방법이다. 이 때 고리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고리는 세로로 긴 편타원형을 3등분하였을 때 상단과 하단, 그리고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면계가 통과하는 방향은 은제장식 말띠드리개 몸체 (세로로 긴 형태)에 대해 직교하게 된다. 두 번째 고리 역시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의 안쪽 (뒷면)에 위치하며 몸체를 크게 2등분하여 상단부와 하단부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때 고리의 방향을 첫 번째 것과 다르게 하여 면계가 은제장식 말띠드리개 몸체 (세로로 긴 형태)에 대해 평행하게 되도록 하고 있다. 즉, 첫 번째 고리 유형은 면계가 가로방향으로, 두 번째 고리 유형은 면계가 세로방향으로 연결되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두 유형 모두 골모드 20 호묘 출토품에서 확인되고 있다.



도 2. 몽골지역 골모드 20 호묘 출토품 및 뒷면 고리 세부

마지막으로 은제장식 말띠드리개 안쪽(뒷쪽)에 고리가 없는 대신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다. 이 유형을 면계에 착장하는 방법은 구멍에 실이나 가죽 등을 통과시켜 면계에 기워 고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용 올 6 호묘 · 20 호묘, 차람 7 호분 등의 출토품이 해당된다.

3. 면계와의 관계

기존 선학들은 은제장식 말띠드리개를 면계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그 성격을 마구로 규정한 바 있다. 은제장식 말띠드리개가 면계와 만났을 때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을지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면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 역시 은제장식 말띠드리개가 면계에 착장되는 부분일 것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기술한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의 형태적 속성에 근거를 둔 고리와 구멍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고리가 부착된 유형의 경우, 골모드 20 호묘 출토품에 주목하면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의 길이는 14cm 내외, 폭은 7cm 미만의 규격이 알려져 있다. 이 유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면계가 통과하는 방향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면계가 가로방향으로 통과하는 유형의 경우, 고리의 크기가 다르게 부착되어 있어 고리를 통과하는 면계의 폭이 약 0.6cm 정도로 1cm 미만인 것과 약 2.4cm 정도로 3cm 미만인 것 2 개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두 번째 면계가 세로방향으로 통과하는 유형에서는 부착된 고리의 폭은 일정하며 면계의 폭은 약 1.8cm 정도로 2cm 미만인 것에 해당된다. 이를 종합하면 첫 번째 고리 유형에는 폭이 다른 2 개의 면계가 사용되고 있으며 두 번째 고리 유형은 하나의 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제장식 말띠드리개 가장자리를 따라 구멍이 뚫린 유형은 노용 올 6 호묘 등의 출토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형은 가장자리의 구멍과 면계를 기워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의 길이와 폭을 대부분 사용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면계의 규격이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의 길이와 폭에 대해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7).

[표 7] 구멍이 뚫린 유형의 은제장식 규격

유적	길이 (cm)	폭 (cm)
노용 올 6 호묘	16.1	8.2

4. 소결

흉노 무덤 출토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특이한 형태와 그 안에 시문된 입체적인 동물문양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 유물로 마구로 규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 형태적으로는 편타원형이고 기능적으로는 말 후걸이장식으로 추정되는 은제장식 말띠드리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기적으로는 주로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사이에 해당된다. 또한 형태적 속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안쪽(뒷쪽)에 고리를 장착한 유형과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착장방법 및 면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자는 고리를 통해 면계에 걸쳐지고 후자는 작은 구멍들을 실(가죽)과 같은 사용하여 기워서 면계 위에 고정되는 형상을 띠고 있다.

다음은 동아시아 지역의 馬裝 중 말 후걸이장식에는 행엽과 운주가 있는데 흉노 무덤 출토의 편타원형 은제장식 말띠드리개는 행엽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다. 그 가운데 흉노 무덤 출토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와 형태적으로 유사성이 지적된 바 있는 圭形행엽이 중국 동북지방에서 확인되고 있다. 규형행엽은 4세기대가 중심이며 입문을 가지고 있어 면계가 입문을 통과하거나 구금구에 못으로 고정되어도 모두 면계에 垂下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양자간의 차이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마구적인 역할과 기능의 변화도 고려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의 성격과 기능적 고찰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맺음말

동물부장과 마구 중 행엽이라는 요소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몽골지역까지 시야를 넓혀 보았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자료의 사용과 지역 간의 시간적, 공간적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후 우리나라 말문화 복원에 대한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姜仁旭, 2010, 「흉노와 동아시아 - 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겸하여-」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 부경대학교 · 중앙아시아학회 2010년 국제학술대회,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국립중앙박물관, 2008, 『몽골 흉노 무덤 자료집성』.
- 신용민, 1999, 「중국 한 대 흉노 · 선비 묘제 소고」 『영남고고학』 24호, 영남고고학회.
- 이난영 · 김두철, 1999,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윤희원, 2003, 「모린 톨고이 흉노 무덤의 성격」 『제1회 한-몽 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에렉젠(Gelegdorj EREGZEN), 2009,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張允禎, 2012a, 「몽골지역 흉노무덤 출토 동물 뼈로 본 동아시아의 습속」 『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 국립중앙박물관 · 부경대학교 2012 국제학술대회,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張允禎, 2012b, 「동물 부장양상을 통해 본 북흉노의 매장습속 - 몽골지역을 중심으로」 『文物研究』 제22집, 동아시아문물연구소.
- 장윤정, 2014, 「마구로 본 흉노와 한반도 - 말띠드리개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曹建恩, 2012, 『中國 內蒙古 中南部地域 商周時代 考古學 文化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h. 유를 에르데네, 2008, 「골모드 유적 흥노 귀족 무덤 출토 거마구」『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국제 학술심포지엄 초원의 대제국 흥노』, 국립중앙박물관.

九州國立博物館, 2003, 『馬 アジアを駆けた二千年』

梅原末治, 1960, 『蒙古ノイン・ウラ發見の遺物』, 東洋文庫論叢 第 27 冊, 東京

穴澤和光・馬目順一, 1984, 「安陽孝民屯晉墓の提起する問題(Ⅰ)―「現存最古の鐙」を含む馬具をめぐって―」Ⅳ考古學ジャーナル』227

穴澤和光・馬目順一, 1984, 「安陽孝民屯晉墓の提起する問題(Ⅱ)―「現存最古の鐙」を含む馬具をめぐって―」Ⅳ考古學ジャーナル』228

Bryan K. Miller・Ursula Brosseder, 「Beasts of the North : Global and Local Dynamics as Seen in Horse Ornaments of the Steppe Elite」, 「Asian Archaeology」 Volume 1, 94-112, Science Press, 2013